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2개 사업 대상자 선정

전북도, 활성화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

전북도가 산업부의 '2021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을 응모해 모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켰다.

이로써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229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과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성장 촉진 정책 중 하나다.

이번에 선정된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2022년부터 3년 간 143억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사업'은 86억원 등 총 2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참여기관인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활성탄 섬유 생산 및 시험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해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

도록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한다.

또,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시험분석/신뢰성평가 지원 등) 등 점주거점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섬유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을 꾀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기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비활용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과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전라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선정으로 섬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시설 개선·운영자금 지원

전북도가 축산물의 위생·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축산물 가공·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축·가공업체 위생시설 확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축장·축산물가공업·식육 포장처리업 등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축산물 생산·가공 업체다.

지원내용은 도축 가공시설 현대화, 계란가공장 및 등급시설 구축,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구축,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등이다.

개소당 3~50억까지 연 2~3%, 다양한 상환조건(1년 거치~10년 균분상환)으로 축산물가공업체에 지원한다.

사업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 지원으로 축산물 유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총괄건축가 위촉 전북도는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에 전북대 진정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5월부터 전북도의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도, 금어기·금지체장 불법어업 행위 단속

전북도가 불법 어패류 산란기 및 어린 치어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

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의 어구 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어구 사용 금지 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꾸미 포획 금지 기간(5.11.~8.31.) 및 꽃게 포획 금지체장(두홍갑장 6.4cm)을 위반해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등 금어기·금지체장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에게

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봄철 금어기·금지체장 불법어업 단속과 동시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일배기 수산물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가 잘 성장하도록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어린이날 대축제' 드라이브 스루로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300명 초대 비대면 진행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 이하 창의체험관)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어린이 300명을 초대해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의 비대면 '어린이날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창의체험관에 따르면, 이번 드라이브 스루 어린이날 대축제는 개최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2,30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에, 체험관 측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명의 아이들을 초대한다.

어린이날 대축제는 송하진 도지사의 영상 기념사와 도내 어린이들의 꿈 인사 상영,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기념식으로 시작돼 총 10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체험과

놀이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에 탑승한 채로 '손 소독제 만들기', '타투 스티커', '비눗방울 놀이', '물총놀이', '색 칠놀이', '요철산 납기', '공냥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퀴즈풀이', '전자팽이경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창의체험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초로 시도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어린이날 행사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의체험관을 통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어린이체험놀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병해충 적기 방제 총력

산림·농경지 피해 최소화 위해 조기 예찰활동 강화

전북도는 가루수는 물론, 과수원 등에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발생이 예상된다며, 5월부터 6월까지 조기 예찰 활동 강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겨울 적설량 부족 등 월동 생존환경이 양호해진데다, 기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평년보다 부화 시기가 빨라, 농림지 동시발생 해충과 외래·돌발 해충의 대량 발생이 예상된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농림지 동시발생 해충은 5월 중순에 산림에서 부화해 인근 농경지로 이동하며, 애벌레들이 모여 생활하는 6월 초순까지 지상방제 작업을 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 기간 3,500여 ha에 걸쳐 집중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찰방제원 44명을 고용해 사전 알집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예찰로 발생현황을 파악 후, 병해충 습성과 특성에 따라 지상약제 살포, 나무주사 등 적절한 방제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해충(꽃매미 등)은 부화 후, 산림의 가죽나무, 참죽나무, 두릅나무 등 활엽수에서 서식하다가 인접 농경지로 옮겨 포도, 대추, 배, 단감과 같은 과수나무 줄기의 즙액을 빨아서 생장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 줄기를 말라 죽게 한다.

또한, 다량의 분비물 배설로 그늘을 병을 유발해 광합성 능력 저하로 생육 방해와 과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병해충의 피해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과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지정 약수터 전체 수질 적합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도내 지정 약수터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시·군 지정 약수터 9개 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흡시

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재점검을 실시해 공공시설 먹는물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 수질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수질기준 47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jhe.jonbuk.go.kr>)에 게시했다. /유호상 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욱



제진위원장
김철환(주)은혜상사 대표

- 참가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 기 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시: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원: 전라북도, (주)은혜상사, 휴네이처,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